



KIA 보름달처럼 'V10' 밝힌다

KS직행 타이거즈 '우승신화' 이번에도...

역대 9번 진출 모두 추배



KIA 타이거즈가 12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한가위를 선물했다. 추석 연휴에도 선수단의 일정은 쉬없이 진행된다. 1일 하루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연휴 첫날인 2일과 추석 당일인 3일에도 변함없이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운동화끈을 조여낸다.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추석 휴식까지 반납한 KIA 선수단이 팬들을 위해 한가위 인사를 전했다.

정규리그 1위는 한국시리즈 우승의 보증수표?

KIA 타이거즈가 12년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V10'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KIA는 전신 해태시절인 1997년 정규리그 우승의 기세를 몰아 한국시리즈에서 LG를 4승1패로 제압하며 9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89년까지 프로야구는 전·후기 리그로 나누어져 전기 우승팀과 후기 우승팀이 한국시리즈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IA가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1983년 이 처음. 이때 KIA는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동시에 차지했다. 이후 1986(후기 우승)·1988(전·후기 우승)·1991·1993·1996·1997년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시리즈에 안착했다.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7번의 시즌에서 모두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며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공식을 세웠다.

삼성의 전·후기 통합 우승으로 한국시리즈가 무산된 1985년을 제외한 26번의 한국시리즈에서 정규리그 1위 팀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는 4번밖에 없다.

삼성과 한화(당시 방그레)가 정규리그 1위를 기록했던 1987년과 1989년, 정규리그를 2위로 마감했던 KIA가 두 팀의 한국시리즈 제패를 저지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드림과 매직이라는 양대리그가 도입된 1999년에는 두산과 삼성이 각 리그의 1위에 올랐지만 정작 한국시리즈는 한화와 롯데의 대결이 됐다. 한화는 그해 우승으로 구단 창단 이후 첫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2001년에는 삼성이 81승 52패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지만 두산에게 밀려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내줬다.

한국시리즈 직행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팬

팬 긴장감속에 플레이오프와 준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게 되는 나머지 세 팀 보다는 체계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포스트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찰자 입장에서 준·플레이오프를 지켜보며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해둘 수 있다.

하지만 정규리그 우승팀이 극복해야 할 단점도 있다. 오랜 공백으로 경기감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단점. KIA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여러 이점을 안고 앞선 출발을 하게 된 KIA,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우승' 공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가을전체를 기다리는 KIA 야구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